

여야 '尹탄핵안' 대치...“통과 막겠다” vs “반드시 탄핵”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론 정해
한동훈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
민주당, 탄핵 동참 거듭 압박
이재명 “내란 동조세력 되지 말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운데)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찬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탄핵반대'를 당론으로 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찬성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다.
이날 0시 48분 국회 본회의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안이 보고됐다. 민주당은 오는 7일 오후 7시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표결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탄핵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비상계엄 사태는 위헌적이지만, 선부른 탄핵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집권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 한 대표와 국민의힘 의견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탄핵안에 대해 “의원 108명의 총의를 모아 반드시 부결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4일 당 의원총회에서 반대당론을 정한 데 이어 한 대표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힘에 따라 여당으로서 일단 탄핵안 부결을 위한 1차 고비는 넘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당 내에도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적지 않은 만큼 이태표 우러도 여전히 잡박한 상황이다. 더욱이 탄핵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돼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표결 집단 불참 등 이태표를 원천 봉쇄할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탄핵과는 별도로 윤 대통령의 탈당을 놓고는 내부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분위기다.
한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탈당을 거듭 촉구했지만, 친윤(윤석열)계와 중진들 사이에선 “탈당은 곧 탄핵”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을 부각하면서 여당의 탄핵 동참을 거듭 압박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강조한 뒤, 한

대표를 향해서는 “내란 동조 세력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역시 탄핵 반대 입장을 정한 여당을 향해 “쓰레기 정당, 국민의 적이 되지 말고 역사에 죄를 짓지 마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아직까지 그동안 대통령실 쇄신 등을 공개 촉구해 온 친한(한동훈)계의 이태표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표는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한 대표에

게 직접 연락을 시도했으나 아무 반응을 듣지 못했다는 사실도 이날 공개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 요구안을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일반 특검법의 경우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에 가로막히는 만큼 본회의 가결만으로 가동할 수 있는 상설특검을 택하겠다는 것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도

야당 주도 본회의 통과...여당 의원들 표결 불참 규탄대회 개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이상수 서울 중앙지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로 상정·표결된 데 대해 “유례없는 막가파식 횡포”라고 비판했다.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의 결서 송달 절차를 밟는 대로 직위가 정지된다.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돼 직위가 정지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원법에 따라 재직기간이 가장 긴 감사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이날 본회의는 여당 의원들이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의 탄핵에 반발해 불참하고서 규탄대회를 연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여해 진행했다.
민주당은 앞서 대통령 직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으며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상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탄핵안에 대한 표결도 함께 이뤄져 가결됐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이 지검장 등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민주당이 설명한 탄핵 사유다.
민주당은 애초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집중하겠다고 최 원장과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은 보류하기로 했으나, 지난 4일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로 당론을 정하면서 최 원장 등에 대한 탄핵을 다시 표결하기로 방침을 선회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당 차원의 규탄대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에 방해가 되면 국가기관, 헌법기관, 수사기관 할 것 없이 탄핵으로 겁박하고 기능을 마비시키겠다는 저열한 정치적 모략이다”며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막가파식 횡포이다”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집값 통제 조작,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사드 기밀 유출까지 문제만 정권의 국기문란 범죄가 감사를 통해 밝혀지지 보복의 칼을 들고 나왔다”며 “검찰 지휘부 탄핵도 이재명 대표와 문

전 대통령, 민주당 의원을 수사하는 검찰의 직무를 정지시켜 손발을 잘라내겠다는 치졸한 정치 보복”이라고 덧붙였다.
또 “국정 방해와 정권 흔들기가 유일한 목적이자 당 대표 방탄이 유일한 목표인 더불어민주당 다운 후안무치한 행태”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의 방관 속 거대 야당이 가이여 추진하겠다는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의 본질은 정치 폭력이자 입법 테러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상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 소추 등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본회의장 표결에 불참했다.
한편 재해 감사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성실히 임해 감사원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정치적 탄핵 추진으로 국가 최고감사기구인 감사원의 독립성에 심대한 위해를 초래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감사원장의 직무가 일시 정지되더라도 헌법이 부여한 감사원 본연의 임무 수행에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대통령실 “당정대 면담서 탈당 얘기 없었다”

한 “총리·비서실장에 요구 전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을 만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설명했지만 자신의 탈당 관련 대화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당정대 면담에 대해 “진지하게 현 정국 상황을 논의했고 견해차가 드러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탈당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언론에 전했다.
반면 한 대표는 회동 후 언론에 직접 윤 대통령과의 면담 전 이미 총리와 정진석 비서실장에게 대통령 탈당 요구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또 윤 대통령이 이날 면담에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개진했다.
여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이날 면담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을 두고 ‘야당의 폭주에 맞서 불가피한 경고성 조치’라는 취지로 설명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연이은 정부 관료 탄핵과 입법·예산안 강행 처리로 인해 국정이 마비된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하며, 국가와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고

역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 헌법 수호자로서 불가피한 결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는 반국가 세력에 대한 엄단과 경고의 뜻으로 봐야 한다”며 “망국적·위헌적 폭주에 오죽하면 최후의 수단을 꺼내들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또 계엄령에 따라 국회에 군이 투입되기는 했으나 본회의 개최를 막지는 않았고, 군이 실탄은 소지하지 않는 등 실제 물리력 행사는 없었으며, 계엄 선포와 해제 전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준수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도 이날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비상계엄 조치는 모두 헌법적 틀 안에서 이뤄졌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반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밤 10시가 넘어 긴급 담화로 계엄을 발표했고, 국회에 군 투입은 그로부터 약 1시간 후에 했다”며 “비상계엄 해제 요구 요건을 알고도 국회가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군이 국회의원의 국회 진입을 막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전체이사장
나학수 목사
(광주거주교회)



법인이사장
김용대 목사
(영광대학교)



총장
김경윤 박사



For the **Lord**
To the **World**
주님을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2025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학부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단위	수시	정시
인문사회	신학과	30	5
	한국어교육학과	1	1
사범	복지상담융합학부	24	5
	유아교육과	8	2
예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실용음악학 전공)	21	8
	총계	84	21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

www.kwangshin.ac.kr

학부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4. 12. 31.(화) ~ 2025. 1. 3.(금)

· 전형일: 2025. 1. 13.(월)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지소로 36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